

문화

‘편해서’ 입는 과감, 학벌 서열화 부추긴다는 비판도

(학과 야구점바)

과감을 입는 이유

최병현 기자 chbh1027@knu.ac.kr

#. 캠퍸스를 수놓은 단풍을 즐기기도 전에, 쌀쌀해진 날씨로 외투를 여미게 되는 계절이다. 이때쯤이면 ‘과감’을 입은 학생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학과 야구점바’(과감)를 입고 등굣길에 나서는 학생들의 표정에서 어느새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겨울을 읽을 수 있다. 어느 대학생의 상징이 된 과감이지만 그 의미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는가? 과감을 입는 이유와 과감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이에 대한 여려 의미들을 짚어봤다.

과감은 학과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입는 단체복의 일종이다. 타 대학, 타 학과와의 차별성을 위해 과감 곳곳에 학교 이름과 학과, 학교 마크, 학번 등을 새기는 게 일반적이다. 이러한 형태의 과감은 2000년대 초반 몇몇 학과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최근에는 학과뿐만 아니라 동아리, 학생회 등 소규모로 단체복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과감은 이젠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가진 패션 아이템이 되었다.

한국의 동질감 문화의 대표 학과·동아리 이미지도 상징

학생들이 과감을 입는 가장 큰 이유는 ‘소속감’이다. 통일된 디자인의 과감은 새내기 배움터나 MT 등 주요 행사 때마다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공동체를 나타내는 의복인 만큼 과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대변하기도 한다. 학과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학과 내에서 자체 제작한 로고를 사용하기도 하고, 학과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디자인을 그대로 물려받기도 하며, 공모를 받아 투표를 통해 디자인을 스스로 결정하기도 한다. 최상원(경영학 2015) 양은 “투표와 회의를 통해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함께 디자인을 정한 과감이기 때문에 그만큼 애착이 간다”며 “같은 과감을 입은 친구들을 보면 동질감이 느껴지고, 가끔 다른 학과의 예쁜 과감을 보면 그 학과 이미지가 과감으로 남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속감’은 옷을 입은 착용자에게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로 인해, 본인의 소속



을 드러냄으로써 활동범위가 좁아지는 ‘심리적 거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인문지리학회 ‘지인’이 우리학교 학생 157명을 대상으로 한 ‘과감 어디까지 가봤니?’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눈여겨 볼 만하다. 통계에 따르면 통학생은 ▲번화가(65%), ▲서울 외 타 지역(55%), ▲비교적 입시 결과가 높은 타 학교(53%) 순으로 심리적 거리감을 느꼈다. 자취생의 경우 ▲비교적 입시 결과가 높은 타 학교(52%), ▲번화가(47%), ▲서울 외 타 지역(36%) 순이었다. 과감은 각 대학별 모임의 문화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만이 반영된 공간보다 다른 문화와 만나는 공간인 변화가, 타 학교의 교내, 타 지역에서 과감 입기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편의성’ 또한 과감에 자꾸 손이 가게 만드는 이유다. 과감은 이른바 ‘야구점바’ 형태라서 대부분 옷에 잘 어울리는 데다 입을 옷이 마땅치 않을 때 가볍게 입기 좋다

는 게 학생들의 의견이다. 정현진(영어학 2015) 양은 “따뜻하고 편해서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는 자리에 자주 입게 된다”며 “크게 유행을 타지 않아, 학교를 다니는 동안 실용적으로 입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학가의 과감문화에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우리’를 강조하는 공동체 문화가 자칫 개인들의 몰개성성을 불러일으키고 무의식 속에서 집단논리를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희제(사회학) 교수는 “우리나라에 처음은 외국인 학생들은 이러한 한국대학의 독특한 과감문화에 놀라기도 한다”며 “단체로 획일화된 과감을 입는 것은 의복의 기능 중 하나인 ‘개성 표출’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분석했다. 한 학생은 “과감 가격이 부담스럽지만, 친구들이 대부분 과감을 구매하니까 따라 살 수밖에 없었다”라며 “과감을 구매하지 않으면 학과에 애정이 없다고 눈치를 주는 분위기도 한 몫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속감 높이기도 하지만 서열화 부추기기도 해

더불어 과감문화는 학벌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이른바 ‘서열 패션’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구성원 간의 소속감을 위한 과감이 동시에 학벌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다른 학과 과감과 마주치면 ‘입시 결과’에 따라 매겨진 학교 순위로 한쪽은 우월감을 다른 쪽은 열등감을 느끼는 일도 부지기수다. 같은 학교 내에서도 ‘입결’이 높은 학과와 그렇지 않은 학과의 과감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사뭇 다른 듯하다. B 학생은 “야구점바를 볼 때면 습관처럼 뒤판의 학교와 학과명이나 팔뚝의 학교 마크를 살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명문대학이라 생각하는 학교인 것을 확인하게 되면 감탄하기도 하지만, 지방 사립대학 과감을 입은 학생이 지나가자 아주머니들이 하는 뒷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서 “과감이 학벌을 나타내

는 수단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윤을 한 표정을 지었다.

박 교수는 “대학가 안에서 과감이 문제로 된다는 건, 젊은 대학생 스스로가 서열 자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열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패배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사회의 시선들을 가볍게 털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아직은 사회의 구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젊은 청년들이 벌써부터 사회의 선입견을 스스로 내면화시키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제 대학생들에게 과감은 쌀쌀한 날씨에 가볍게 걸치는 단순한 외투로써의 의미를 넘어선 듯하다. B 학생은 “야구점바를 볼 때면 습관처럼 뒤판의 학교와 학과명이나 팔뚝의 학교 마크를 살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명문대학이라 생각하는 학교인 것을 확인하게 되면 감탄하기도 하지만, 지방 사립대학 과감을 입은 학생이 지나가자 아주머니들이 하는 뒷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서 “과감이 학벌을 나타내

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안내

- 신청대상 :** 2004~2007학년 재학생 중, 금학기 현재 받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지 않으며 이수하지 않은 자
- 이수면제 대상과목(학점부여 입증)**
가) “대학영어”나, “시고와 표현”, “보고서작성과 발표”, “생명과학하는문작성법”
다) 전시영역의 경우 이수요건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 면제기준 및 자격**
가) 대학영어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 1) 공인영어능력으로 개별별 TOEFL, TOEIC, TEPS 일정점수 이상자
 - 2) 국제화 추진 TOEFL, TOEIC, TEPS 전형 입학자
 - 3) 영어권 국적 외국인 특별입학자
 - 4) Intensive Program DEEP, LEAP, REACH-이수자
 - 5) 국제교류처 관 영어권 학점교류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

[이수면제 기준표]

면제종류	개별	대학	면제기준				면제내용
			TOEFL CBT IBT	TEPS	TOEIC	G-TELP	
공인영어시험 능력자	외국어대화 국제·경영대학	207 이상	76 이상	600 이상	700 이상	66 (Level2) 이상	과목면제
	전자정보대학 융융수리대학 융융자기대학 융융자기대학 융융자기대학	193 이상	69 이상	551 이상	650 이상	57 (Level2) 이상	
	공과대학 생명과학대학 융융자기대학 융융자기대학	190 이상	68 이상	530 이상	640 이상	56 (Level2) 이상	
예술 개별	체육대학 예술·디자인대학	147 이상	51 이상	400 이상	510 이상	57 (Level3) 이상	

* 외부 공인기관 자격증 출제은 매 학기 지정하여 신청 기간에 신청서와 성적표(원본)를 제출한다.

면제종류	자격	면제내용
국제화추진 전형입학자	국제화추진 TOEFL TOEIC 전형 입학자	과목면제
특례입학자 (영어권)	영어권 국적 외국인 또는 영어권 교포자녀, 영어권 재외국인	과목면제
Intensive Program 이수자	국제화센서가 인정하는 - 재학 중 영어권 학점 교류자/여학 연수자로 선발된 자, 외국 영어기관의 과정을 수료하고 상급과정을 취득한 자로 한함. - 영어권 국가에서 험성 인정 가능한 영어 여학연수/교류/외국대학, 대학 부설 및 개인 교육기관 Program에서 48시간(3학기6주) 이상 이수한 후 고급 성적을 취득한 자	과목면제
Intensive Program 이수자	평생교육원 DEEP, 평생교육원 LEAP, REACH 전형 프로그램 과정을 출석은 80% 이상, 성적상급수준으로 수료한 자	과목면제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제41회 중앙도서관 독서토론회

- 강 연 :** 진화심리학자 전중환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주 제 :** “진화, 인간 본성, 그리고 삶의 의미”
- 일 시 :** 2015. 11. 18. (수) 오후 3시
- 장 소 :**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 강사 주요 저서**

- 오래된 연장통 / 전증한 지음, 사이언스북스, 2010
- 욕망의 진화 / 데이비드 버스 지음, 전중환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7

* 강연 후 추첨을 통한 도서 증정 행사가 있습니다.

“인간은 왜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인간의 마음도 진화의 산물이라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진화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은 수백만년 전
수렵·채집생활을 했던 우리의 먼 조상들이 생활하면서 겪었던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끔 자연 선택에 의해 장착된
여러 심리적 도구들의 묶음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이 어떻게 우리 주변의 일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 삶의 의미나 목표 같은 의문들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본다.”

— 강연 요약

* 문의: 중앙도서관 열람과 T.02-961-0074, 0078 khsd3015@knu.ac.kr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